

Strategy

Strategist 이경민
kyoungmin.lee@daishin.com

KOSPI, 무엇으로,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?

- KOSPI 7월 11일 이후 하락의 61.8% 되돌림, 2,630 ~ 40선 지지력 테스트 예상
- 단기 과열해소/매물소화는 낙폭과대,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 비중확대 기회
- 반도체, 2차전지, 자동차 주도로 9월 중 KOSPI 2,750선 돌파 시도 전망

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. 물가 안정과 경기침체 공포심리 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이다. 미국 7월 PPI, CPI 예상 하회 이후 7월 소매판매(전월대비 1%, 예상 0.4%) 서프라이즈,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가 가세하며 글로벌 금융시장, 주식시장에 최상의 조합이 형성되었다. 미국채 10년물리 4% 이하에서 등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공포심리는 빠르게 후퇴할 수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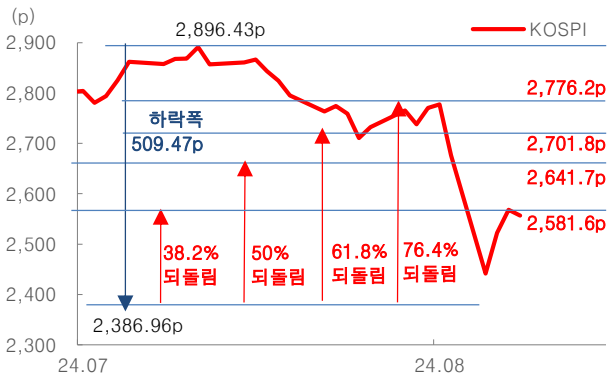
8월 5일 장 중 2,386p(-10.81%)까지 급락세를 보였던 KOSPI도 2,7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. 저점 대비 300p 이상 급반등하며 7월 11일 이후 하락 폭의 61.8% 되돌린 것이다. 즉, 기술적/자율 반등의 중요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. 급반등에 따른 단기 되돌림, 매물소화, 과열해소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이다.

이번주는 8월 22일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, 24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진행된다. 주제는 '통화정책 실효성과 전달력 재평가'로 23일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. 연준의 스탠스를 통해 시장이 통화정책과 경기에 대한 안도/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. 시장 기대와 연준 스탠스 간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KOSPI는 2,630 ~ 2,640선(50% 되돌림 수준, 200일 이동평균선(추세선) 위치)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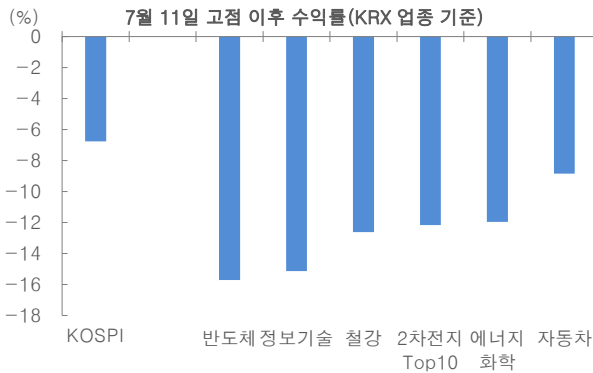
이는 아직 회복력이 약한 업종/종목 중심의 트레이딩 기회라고 본다. 대표 업종으로 반도체, 정보기술, 철강, 2차전지, 에너지/화학, 자동차가 있다.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이자 낙폭과대 업종으로,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(19 ~ 22일)에서 해리스 후보의 경제정책이 부각되고,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상할 경우 주목받을 대표 업종들이다.

필자는 9월 중 KOSPI 2,750선 돌파시도를 예상한다. 동 지수대는 8월 2일 갭간고점이자 급락 직전 수준으로,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12개월 선행 PER 9배(24년 평균의 -2Std), PBR 0.9배(24년 평균), 확정실적 기준 PBR 1배(정상화 분기점)가 집중되어 있다. 제한적인 반등이지만, 업종/종목 대응력 강화로 +α의 수익률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.

KOSPI 61.8% 되돌림 반등. 다음은 2,770 선



저평가 매력 높은 반도체, 2차전지, 자동차



자료: KRX,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작성자: 이경민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